

내년 전문대 유아교육과 문턱 높아진다

교원양성기관평가 광주·전남 6곳 C등급... 정원 134명 줄여야

간호학과 교직과정 4곳도 12명 감축... 호남지역 편중 논란도

2019학년도부터 광주·전남지역 6개 전문대 유아교육과 정원이 134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1개 학과가 없어지는 셈이어서 수험생들의 진학문턱이 더 좁아질 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7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하위 등급 학과·과정은 정원을 감축하거나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교육대, 사범대, 일반대 교육과 등 교사를 길러내는 기관의 질을 높이고자 이들 기관의 학습 여건과 교육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제4주기(2015~2017년) 3차연도 평

가로, 광주·전남지역을 포함한 전문대 108개교와 일반대 9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A부터 E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눠 C등급(1000점 만점에 600점 이상 700점 미만)은 정원 30%, D등급(500점 이상 600점 미만)은 정원 50%를 줄여야 하고, 최하위인 E등급(500점 미만)은 해당 기관·과정을 없애야 한다. 유치원 교사를 길러내는 전문대 유아교육과·보육과의 경우 평가 대상 93곳 가운데 A등급이 38개교, B등급이 41개교, C등급이 13개교였다. 서해대 유아교육과는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C등급 13개 유아교육과와 폐교할 전북

서해대 유아교육과 등 14개 학과에서는 2019학년도 정원이 363명 줄어든다. 광주·전남에서는 고구려대, 동강대, 서영대, 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한영대 등 6개 대학이 C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들 대학이 각각 30% 줄여야 하는 유아교육과 정원은 통틀어 134명에 달한다. 다만, 줄어든 유아교육과 정원만큼 타 학과에서 신입생을 뽑을 수 있어 총정원은 감소하지 않는다. 전문대 간호학과 중 교직과정을 둔 45개교 가운데는 A등급이 5곳, B등급이 27곳이었다. C등급 12곳, D등급 1곳 등 13개 학과 교직과정은 2019학년도 정원을 49명 줄인다. 광주·전남지역에서 C등급에 포함된 학교는 광주보건대, 동강대, 서영대, 전남과학대 등 4곳으로 각각 교직원 정원 3명씩을 줄여야 한다.

실기교사 양성과정을 둔 전문대·일반대 34곳의 경우 A등급이 16개교, B등급이 11개교였고, C등급이 6개교와 D등급 1개교는 정원을 352명 감축하게 된다. 2017학년도에 이들 학과·과정의 정원이 1만5465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019학년도 정원은 770명 적은 1만4706명으로 줄어든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진행된 4주기 평가 결과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은 6499명 감소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학교 13개교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대학 6곳이 포함돼 편중 논란도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 지역에 C등급 대학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평가위원들의 객관적 평가결과이니 만큼 교육부가 개입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춘분 때아닌 눈, 지구온난화 탓 시베리아 한기 유입

낮부터 차차 풀려

밤보다 낮이 길어지는 절기인 춘분(春分)에 광주·전남지역에 때아닌 매서운 눈과 강풍이 불었다. 특히 이번 눈은 3월 하순으로는, 13년 만에 내린 눈이다. 2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는 이날 1.0mm의 눈이 내리면서 지난 2005년 3월 24일 0.5mm의 눈이 내린 이후 13년 만에 3월 하순(21~말일) 눈이 내렸다. 광주지역은 3월 들어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낮 최고기온 24.8도를 기록하는 등 롤러코스터 같은 기온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시베리아에서 시작된 찬 고기압이 중국 대륙을 거쳐 내려오는 과정에서 북철 높아진 태양 고도로 데워지고 따뜻한 남서풍까지 더해져 최고기온이 24도가 넘는 초여름 날씨를 보였다. /김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반대로 지난 19일부터는 시베리아의 찬 이동성 고기압이 중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동해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때 남쪽에 올라오는 따뜻한 저기압을 만나 기압경도력(두 지점 사이의 기압 차에 의해서 생기는 힘) 커져 이례적인 강풍이 불고 있다는 게 기상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20일 여수가 순간 최고바람이 21.6m로 가장 세게 불었으며, 보성 14.6m, 광양 14.3m, 광주 12.6m 등 강풍이 불었다. 이와 함께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북극 상층의 온도가 올라 제트기류가 약해졌고, 이 틈으로 빠져나온 한기가 시베리아를 거쳐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3월 하순에 갑자기 추위가 찾아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22일 광주·전남지역은 낮 최고기온 8~13도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으로 올라가고, 일교차는 클 것으로 전망됐다. /김현배기자 young@kwangju.co.kr

실효성 논란 '개파라치' 연기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애초 22일로 예정됐던 반려견 소유자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 시기를 연기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 미부착, 외출 시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과태료 지급 대상 행위를 한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하겠다"면서 "위반행위는 여전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포상제 제외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예정대로 22일부터 시행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 월남전 참전명예수당 인상

광주시는 이달부터 6·25전쟁 및 월남전 참가자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인상되고 지급 대상자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참전 명예수당은 65세에서 79세까지는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만원 인상했다. 80세 이상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랐다.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전상 군경과 고엽제 후유증 대상자도 월 2만원씩 지급한다.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유족, 4·19혁명 사망자 유족 등에게는 보훈 명예수당을 신설, 2만원씩 지급한다. 참전 명예수당은 7123명에게 33억5000여만원이, 보훈 명예수당은 3143명에게 7억4천만원이 지급되는 등 모두 1만266명에게 41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수당은 22일부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 참전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 등) 등과 함께 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광록기자 kroh@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4 달뜨기 09:37
해질 18:45 달지기 23:37

오후엔 봄 햇살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1/11	보성	맑음	0/10
목포	맑음	2/9	순천	맑음	1/11
여수	맑음	3/12	영광	맑음	0/9
나주	맑음	0/11	진도	맑음	2/8
완도	맑음	2/11	전주	맑음	0/11
구례	맑음	0/10	군산	맑음	-1/10
강진	맑음	0/11	남원	맑음	0/11
해남	맑음	0/10	홍산도	맑음	3/8
장성	맑음	0/10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남부	안바다	안바다
남해남부	안바다(동)	안바다(서)
남해서부	안바다(서)	안바다(동)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0:29 22:43	05:22 17:31
여수	05:53 18:11	12:05 --:--

◇ 주간 날씨

23(금)	24(토)	25(일)	26(월)	27(화)	28(수)	29(목)
☀	☀	☀	☀	☀	☀	☀
0/14	2/17	5/18	6/18	6/18	7/19	8/19

◇ 생활지수

뇌졸중	높음
감기	높음
미세먼지	보통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21일 전남 함평엑스포공원 다육식물관에서 열린 '제20회 함평나비축제 성공기원 나비 날리기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나비를 꽃밭에 풀어주고 있다. 함평나비축제에는 '함평나비 청년이 되어 세계로 비상하다'라는 주제로 다음달 27일부터 5월 7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본 상품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협력기업인 (주)아침가리, (주)아라움, 살롬산업(주), (주)별고꼬막이 전남의 싱싱한 수산물로 만든 최고품질의 수산가공 베스트 상품입니다.

(주)아침가리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모사길 62 Tel. 061)542-8933

- 볶음용멸치 250g **6,100 원**
- 국물용멸치 200g **4,000 원**
- 볶음용멸치 500g x3 **33,000 원**
- 볶음조림용멸치 500g x3 **33,000 원**
- 전미역 250g **3,800 원**
- 해산물세트 **17,000 원**

(주)별고꼬막 전라남도 보성군 별고읍 함암길 185-95 Tel. 061)745-9907

- 꼬막볶음고추장 **5,850 원**
- 왕꼬막통조림 간장 **2,250 원**
- 꼬막통조림 소금 **2,700 원**
- 꼬막통조림 간장 **2,700 원**

살롬산업(주)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어시물길 10 Tel. 1577-8885

- 히팅록 소고기맛 **4,500 원**
- 제품 설명: 발명체가 내장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별도의 가열장치 없이 조리 가능합니다. 물을 붓고 졸을 끓여당기면 15분 후 드실 수 있습니다. 아웃도어를 즐기는 고객들이 많이 찾는 제품입니다.
- 히팅록 치킨카레맛 **4,500 원**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전남 대표수산기업인 (주)아라움, 살롬산업(주), 무안 구로어촌계, 여수 안포어촌계, 해남 송호어촌계와 함께 조만간 전남 대표 수산가공상품을 출시합니다.

(주)아라움 대표 김미선 살롬산업(주) 대표 김경애 여수안포어촌계 계장 이희한 무안구로어촌계 계장 정경태 해남송호어촌계 계장 홍양배

구 매 문 의

(주)아침가리 061)542-8933
(주)별고꼬막 061)745-9907
살롬산업(주) 1577-8885

5만원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JEONNAM FISH VILLAGE SPECIALIZED SUPPORT CENTER
광주광역시 동구 광남로 238 무등빌딩 16층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T. (062) 220-0514 F. (062) 222-8005
홈페이지 : www.jnbada.or.kr